구례군, '중대재해 예방' 공직자 직무교육추진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양정열 센터장 초청

직원들 중대재해 사전 예방조치 및 대응능력 강화위해

구례군은 지난 10일 섬진아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관한 공직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재해 발생 유형을 분석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중대재해 사전 예방조치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발생원인 및 대책 ▲관리감독자 지위와 역할 ▲작업장 위험 요인 예방 및 대책 ▲산업현장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양정열 센터장이 강의했고, 유영광 부군수를 비롯한 팀장급 이상 관리자 및 전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중대 산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중대재해 예방 절차서 및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 우리동네 복지 기동대 간담회 열어

올해 변경사항 공유 및 의견 교환

장성군이 9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역 내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불편사항 개선 서비스,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읍면 복지기동대원 50여 명이 참석해 주요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활동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주민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 1000만 원 이하 가구다.

노후주택 개선 등 생활불편개선사업은 가구당 최대 150만 원, 경제적 위기가구 생계비는 가구당 40~70만 원, 의료비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사업비 규모는 3억 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됐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헌신적인 봉사가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건설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담양군, 농·특산물 홍보 전문가 양성 교육생 모집

SNS마케팅·포털 뉴스 홍보 교육 통해 생산자가 직접 온라인 홍보

담양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농특산물 홍보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총 14회에 걸쳐 추진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온라인 공간에서 생산자인 농업인이 직접 홍보해 소비자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SNS 마케팅, 포털 뉴스 홍보 등 이론 교육과 기사 작성, 블로그 포스팅하기 등 실습을 병행하며 교육 이후 온라인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교육경영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군 관계자는 "질 좋은 담양의 농·특산물을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홍보가 필수다"며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직접 기른 농산물을 알려 농가 소득 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귀농인 농업 창업 주택 구입 융자 지원나서

곡성군이 지난 9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2023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영농 기반을 강화해 경영안정과 소득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 농업경영인 곡성군연합회, 생활개선회 곡성군연합회, NH농협 곡성군지부 관계자 4명이 심의회 위원으로 참석했다.

위원들은 2023년도 상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안을 심의했다. 사업 계획와 영농정착 의욕 등을 심사해 8농가에 10여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들은 융자 지원을 통해 농지 구입, 한봉, 양봉, 과수원 조성, 저온저장고 등의 농업 창업과 주택구입자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곡성=양해영 기자

화순군, 가축 방역 협의회 개최

가축 방역 약품 및 소독약품 선정

화순군은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축 방역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가축방역협의회 회의에 관계공무원 및 축산단체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악성 가축 질병 발생 방지와 질병 근절 방안을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과 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선정을 논했다.

협의회를 통해 선정되는 약품은 총 25종 예방 약품으로 축산단체 대표들이 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였으며, 선정된 약품들은 조달을 통해 구매할 예정이다.

이날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장인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은 각 축산 종별 단체에게 "그동안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우리 군에서는 최근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방역지침에 잘 따라 주길 당부하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귀농·귀촌은 나주에서' 나주시, 농촌에서 살아보기 24일까지 모집

나주시가 문평 명하햇골 마을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농촌 살기 체험을 운영한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인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거나 계획 중인 도시민이 농촌마을에서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거주,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영농 지식을 얻고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는 귀농·귀촌분야 정책이다.

올해는 총 6가구, 12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도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24일까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로 3년 째 사업을 추진 중인 문평면 명하햇골 주민들은 귀촌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이 마을은 5대째 천연염색 주재료인 '쪽'을 재배하는 사회적기업이자 마을 공동체인 ㈜명하햇골을 중심으로 32가구, 55명의 주민이 살아가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쪽 베기', '쪽 염색 체험·교육 및 제품 판매', '치유음식·치유농업·치유정원 가꾸기' 등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사업을 통해 마을 숙박동 주방시설 등을 개보수하면서 올해 참가자들에게 더 좋은 귀촌 체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참가자들은 체류하는 동안 일자리 탐색, 주거지 탐색·결정, 주민 간 융화프로그램 참여 등 농촌에서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숙박은 무료로 제공되며 1인당 매달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원한다.

나주=송준표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엠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터미널 포스코A&C